

九宮八風에 대한 研究

I. 緒 論	22
II. 本 論	22
1. 九宮	22
1) 九宮에 대한 辭典的 意味	22
2) 九宮說의 醫學에서의 應用	24
2. 太一	27
1) 太一의 辭典的 意味	27
2) 太一游宮	28
3. 八風	28
4. 九宮八風運動	29
5. 《黃帝內經》에서의 관련내용	30
1) 《靈樞·九宮八風篇》	30
2) 《靈樞·九鍼論》	34
3) 《靈樞·歲露論》	35
6. 九宮星野說	38
III. 結 論	40
參 考 文 獻	41

九宮八風에 대한 研究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金容辰

I. 緒 論

사람은 항상 자연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靈樞邪客篇》에서는 “黃帝問於伯高曰 願聞人之肢節 以應天地奈何 伯高曰 天圓地方 人頭圓足方以應之 天有日月 人有兩目 …… 此人與天地相應也¹⁾”라 하여 자연계의 변화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때, 인체는 반드시 자연계에 상응하는 반응을 일으킨다고 하였다.

이와같이 한의학에서는 사람과 자연계가 상응한다는 생각하에 여러 가지 理論을 발전시켜 왔다. 특히 運氣學說은 天時氣候의 변화 및 그 변화가 우주의 만물 특히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論理方法이다. 이는 陰陽五行을 핵심으로 하고, 天人相應의 全體觀念의 기초위에 체계적인 학설로 정립된 것이다²⁾.

한편 자연계의 기후변화를 연구한 내용으로는 運氣學說이외에도 九宮八風이 있는데 필자는 이 九宮八風에 대하여 《黃帝內經》을 위주로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II. 本 論

우선 九宮八風에 대하여 고찰하기에 앞서 九宮, 太一, 八風 등의 용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들 각각에 대하여 먼저 정리를 하겠다.

1. 九宮

1) 九宮에 대한 辭典의 意味

九宮이란 洛書의 숫자배열과 동일하게 구성된 것으로 후세에 易學의 내용이 추가되어 九宮說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러한 九宮의 意味에 대한 辭典의인 의미로는 아래의 일곱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³⁾.

① 洛書의 숫자에 八卦 또는 八風을 배합한 九個方位이다.

② 《大戴禮記明堂》에서는 고대에 天子가 一年四季節에 따라 돌아가며 거처하는 아홉가지의 집으로 “明堂者 古有之也 凡九室 二九四 七五

1) 河北中醫學院, 靈樞經校釋(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270~271, 1982.

2)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동양의학연구소, p. 80, 1987.

3) ①呂光榮, 中國氣功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②中國道教協會, 道教大辭典, 北京, 華夏出版社, 1994.

③胡孚琛, 中華道教大辭典,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三六一八"이라고 하였고, 漢代의 易學者들이 皇帝가 九宮에 거처하는 것을 본따서 一年四季의 卦氣를 九宮에 배속시켜 점치는데 사용하였다.

③ 옛날사람들이 北極星이 하늘의 가운데 위치하여, 九宮을 순행하여, 吉凶을 점치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였으니, 《易緯乾鑿度》에 "太乙取其數以行九宮"이라고 하였고, 鄭玄의 注에 "太乙者 北辰神名也 下行八卦之宮 每四乃環于中央 中央者 北辰之所居 故謂之九宮"이라고 하였다.

④ 《唐會要》에 "天蓬太乙坎水白 天芮攝提坤土黑 天衝軒轅震木碧 天輔招搖巽木綠 天禽天符中土黃 天心青龍乾金白 天柱感池兌金赤 天任太陰艮土白 天英天乙離火紫"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九宮이다.

⑤ 1977년 7월 安徽省 阜陽縣 雙古堆에서 西漢의 汝陰侯의 墓를 발굴하였는데 출토된 文物 중에 '太乙九宮占盤'이 있는데, 쓰여져 있는 숫자가 洛書의 숫자와 동일하여 九宮이 西漢이전에 점을 치는 방법의 하나로 유행하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⑥ 《黃庭內景經至道章》, 《黃庭內景經靈臺章》 등에서 頭部九宮, 腦部九宮, 上丹田九宮을 말한다고 한다.

⑦ 《道樞修真指玄篇》에서는 人體臟腑의 九宮을 설명하였다.

《管子·幼官篇》, 《呂氏春秋·十二紀》, 《禮記·月令》에서는 天子가 一年사계절에 明堂九宮을 두루 거처하는데, 봄에는 東方의 青陽三宮에, 여름에는 南方의 明堂三宮에, 가을에는 西方의 總章三宮에, 겨울에는 北方의 玄堂三宮에 거처하고, 매 계절에 남는 각각의 18일씩 모두 72일은 中央의 太廟太室에 거처하여 中央土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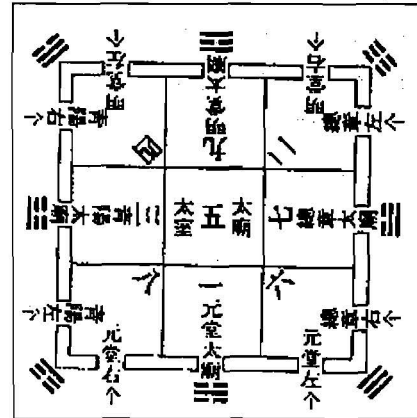


그림 1 明堂九室圖

중앙의 72일은 一年의 20%가 되고, 나머지 사계절의 날짜들도 72일로 一年의 20%씩 이다. 그러나 九宮에서는 봄의 마지막달은 실제로는 여름의 첫달이고, 여름의 마지막달은 실제로는 가을의 첫달이고, 가을의 마지막달은 실제로는 겨울의 첫달이고, 겨울의 마지막달은 봄의 첫달이 되므로 十二月이 거처하는 것은 실제로 九宮이 된다. 이것이 明堂九室說로서 九宮에 대한 비교적 조기의 기록인 것이다. 그리고 九宮에 숫자를 배합하는 것은 《大戴禮記·明堂》에서 "그 수는 二九四 七五三 六一八이다."라고 한 것부터 나타나고, 《九章算術》, 《黃帝內經·靈樞》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九宮에 八卦를 배합하는 방법은 鄭玄이 《易緯》에 주석을 달면서 배합한 것이 처음이라고 인정된다. 鄭玄의 八卦方位는 실제로는 《周易說卦傳》의 八卦方位와 漢易 卦氣說의 四正卦와 후세의 네모퉁이의 방위가 보충되어서 이루어진 것이다⁴⁾.

《易緯》는 《周易》의 經典을 해석한 것으로 儒家經典에 대한 신비주의적인 해석서로, 易

4) 黃漢立, 易學與氣功, 香港, 天地圖書有限公司, pp. 350~361. 1996.

學의 주요 流派를 형성하여 그 영향력이 아주 컸다. 《易緯》는 하나의 緯書이므로 漢의 哀帝 이후 王莽의 찬탈이전 즉 西漢末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추측된다. 《乾鑿度》는 《易緯》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으로 九宮說도 그 내용중의 하나이다.

《乾鑿度》에 나타난 九宮說은 실은 八卦方位說의 한 형식이다. 주로 陰陽二氣의 운행과 八卦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학설로, 太一이 1에서 9까지 陰陽의 數의 순서에 따라 九宮속에서 운행한다는 학설이다. 九宮은 四正과 四維에 中宮이 합하여 아홉 개의 장소가 되므로 太一이 九宮속에서 운행함은 바로 八卦속에서 운행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즉 坎宮인 1에서 시작하여 坤宮인 2 震宮인 3 巽宮인 4 中宮인 5 乾宮인 6 兌宮인 7 艮宮인 8을 차례로 거쳐 離宮인 9에 이르러 마감한다. 四正·四維(坎·離·震·兌의 四卦는 北·南·東·西의 四正位에 거쳐하므로 이것들을 四正이라고 하고, 乾·坤·巽·艮의 四卦는 西北·西南·東南·東北의 네모서리에 거쳐하므로 이것들을 四維라고 한다.)의 방위와 배열된 숫자를 보면 縱으로 합한 수와 橫으로 합한 수와 사선으로 합한 수가 모두 15가 되니, 15라는 숫자는 우주 만물 變易의 법칙을 상징하고 있는 숫자의 의미가 있다.

九宮說은 실은 京房의 卦氣說을 발전시킨 것이다. 즉 고대의 明堂九室說과 수학적 유희의 하나인 九宮算術을 한데 묶어서 음양수의 변화를 가지고 1년 절기의 변화를 설명한 것이다. 京房의 卦氣說과 비교할 때 九宮說에는 두가지의 특징이 있다. 하나는 陰陽의 수와 九宮의 수를 가지고 八卦가 주관하는 절기의 변화가 數의 規則性이 있음을 설명한 내용이다. 다른 하나는 太一 즉 北極星神이 사계절 변화의 주체자라고

한 내용이다. 이처럼 九宮說은 卦氣說을 한층 더 신비화 하였다.

古代에 가장 명확하게 살필 수 있는 자연변화는 春夏秋冬의 계절의 변화이므로 九宮을 漢易의 卦氣說과 결합시켜, 九宮으로부터 卦氣를 설명하였으므로 “太一取其數 以行九宮”의 說法이 있었다. 太一은 北極星을 말하는 것으로, 고대 천문학에서는 北斗七星의 선회로 인하여 사계절의 변화가 있으므로 太一이 九宮을 순행한다고 하였다⁵⁾.

九宮圖의 중앙 一宮은 주위에 있는 八宮의 기준점이 된다. 고대인들은 天象을 관찰할 때 북극성(太一 또는 太乙)을 방향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북극성은 북방에 위치하므로 마주보는 쪽은 남방이고 좌측은 동방이고 우측은 서방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九宮圖는 북극성을 中宮으로 삼았다. 예를들면 《官規輯要》에서 “북극성을 비록 中宮이라 명명하였으나, 실제로는 子位(북방)에 위치하고 午位(남방)과 마주보고 있다.”라고 하였다. 이 밖에도 中宮은 북두칠성이 북극성을 둘러싸고 돌기 때문에 방향을 측정하는 지표가 된다. ‘斗柄’이 돌면서 가리키는 八宮方位에 근거하면 節氣의 변화 및 八方의 기상변화를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옛날에 “斗柄이 동쪽을 가리키면 天下는 모두 봄이다.”라는 말이 있다. 결론적으로 북극성은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고, 북두칠성은 방향을 가리키는 기준이다⁶⁾.

2) 九宮說의 醫學에서의 應用⁷⁾

5) 심경호 역, 廖名春의 2人, 주역철학사, 서울, 예문서원, 1995년, pp. 205~206.

6) 郭東烈, 醫易啓悟, 서울, 成輔社, pp. 129~130, 1997.

7) 楊力, 周易과 中國醫學(卷), 洪元植의 옮김, 서울, 法仁文化社, pp. 79~82, 1995.

九宮占術의 기원은 漢代 《易緯乾鑿度》의 太乙九宮占卜法으로 天象과 人事의 두가지 내용을 포괄한다. 《靈樞九宮八風篇》의 점측술은 內經에서 점측술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논한 부분으로 그 특징은 九宮八卦를 八方에 배당시켜 점을 치는 방법이다. 이는 方位와 節氣, 時間과 空間을 종합한 점측술이다.

《靈樞九宮八風篇》의 점측술은 氣象 物象 및 人象의 세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物象의 점에 관해서는 “太一이 移日에 天必應之以風雨하니 以其日에 風雨則吉하니 歲美民安少病矣라”라고 하여 氣象에 관한 점을 친 것을 설명하였다. 人象에 관한 점은 人間事 및 病狀을 포함하는 것으로 《靈樞九宮八風篇》에서 “太一이 在冬至之日에 有變하면 占在君하고 太一이 在春分之日에 有變하면 占在相하고 …… 風이 從東南方來를 名曰弱風이니 其傷人也에 內舍於胃하고 外在肌肉하니 其氣主體重이라”라고 하여 疾病의 발생에 관하여 예측을 하였다.

다음은 《靈樞經校釋》에서 九宮에 대한 위치, 八風과의 관계등에 대한 설명과 醫學에서의 應用에 대한 설명이므로 참고하고자 한다⁸⁾.

合八風虛實邪正

立夏 四 陰洛 東南方 巽	夏至 九 上天 南方 離	立秋 二 玄委 西南方 坤
春分 三 倉門 東方 震	招搖 五 中央 中央	秋分 七 倉果 西方 兌
立春 八 天留 東北方 艮	冬至 一 叶蟄 北方 坎	立冬 六 新洛 西北方 乾

위 그림은 九宮의 그림이다. 그림위의 “合八風虛實邪正”이라는 말은 九宮方位와 八風의 虛實邪正을 서로 합하여 놓은 것이다. 各宮의 위치에 표시된 方向과 節氣는 四時風向의 차이를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八風이 오는 길의 圖解라고 할 수 있다.

九宮圖의 중앙 一宮은 주위 八宮의 핵심이 된다. 고대사람들이 天象을 관찰할 때에 北極星(옛날에는 太一이라고 불렀다)을 항상 북쪽에 있다고 생각하여 방향을 추정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따라서 그 반대편은 남쪽이므로, 좌측은 동쪽, 우측은 서쪽이 되고, 나머지 네군데의 모서리를 합하여 자연스럽게 八方이 형성되어, 九宮圖에서 北極星을 中宮으로 삼았으니 그 예를 들면 《管窺輯要》에 “北極星을 中宮이라고 이름하였으나, 실제로는 子位에 거처하고, 午方과 반대되는 곳에 있다.”라고 하였다. 이외에도 中宮을 北斗星이 北極星을 도는 궤도에 얽매어 방향을 측정하는 지침이 되며 ‘斗柄’이 가리키는 八方의 방위에 근거하여 능히 四時節氣의 변천을 추측하고, 또한 八方으로부터 오는 氣象의

8) 河北中醫學院, 靈樞經校釋(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373~376, 1982.

번천을 추측할 수 있다. 따라서 “斗柄指東하면 天下皆春이라”라는 말이 있다. 종합하여 보면 北極星위치가 방향을 정하는 기준이 되며 北斗星(斗柄)이 방향을 정하는 방점이 된다. 둘의 관계는 體와 用으로 中宮을 主持한다.

그림 주위에 배열된 乾坎艮震巽離坤兌는 周易八卦의 명칭으로 여기서는 八方의 특징을 나타내어, 일년중의 陰陽消長升降進退의 여러 단계를 설명하고, 四時氣候의 번천을 설명한다. 八卦의 위치는 그 五行屬性에 의거하여 八方에 배속되니, 坎卦는 水에 속하여 北方에 있고, 離卦는 火에 속하여 南方에 있고, 震卦는 木에 속하여 東方에 있고, 巽卦는 또한 木에 속하여 東南方に 있고, 兌卦는 金에 속하여 西方에 있고, 乾卦는 또한 金에 속하여 西北方に 속하고, 坤卦는 土에 속하여 西南方に 있고, 艮卦는 또한 土에 속하여 東方이 된다. 그림중의 각기 다른 節氣의 명칭은 八卦와 陰陽五行의 속성과 관계가 있다. 震卦는 東方에 있어 春分節에 응하고, 離卦는 南方에 있어 夏至節에 응하고, 兌卦는 西方에 있어 秋分節에 응하고, 坎卦는 北方에 있어 冬至節에 응하고, 艮卦는 東方에 있어서 秋分節에 응하고, 巽卦는 東南方に 있어서 立夏節에 응하고, 坤卦는 西南方に 있어서 立秋節에 응하고, 乾卦는 西北方に 있어서 立冬節에 응한다.

그림에서 ‘陰洛’, ‘倉門’ 등 九宮의 명칭이 되는데, 각 명칭의 의미는 각 宮에서 대표하는 시간 순서와 관련이 있으니, 倪仲玉은 “坎宮을 蟄이라 하고 명칭한 것은 冬令이 蟄封藏을 주관하여 一陽이 初動하는 때에 이르러 蟄蟲이 비로소 움직이기 때문에 蟄이라 이름하였다. 艮宮을 天留라고 이름한 것은 艮卦는 山이 되니 바르고 움직이지 않아서 이름하게 된 것이다. 震宮을

倉門이라고 이름한 것은 倉은 저장하는 것이니 天地萬物의 氣가 收藏하고 東方春令에 이르러 비로소 震動開闢하기 때문에 倉門이라고 하였다. 巽宮을 陰洛이라고 이름한 것은 洛書에서 二四爲肩이라고 하였고, 巽宮은 東南方に 위치하여 四月을 주관하므로 이름하게 되었다. 離宮을 天宮이라고 이름하는 것은 日月이 하늘에 붙어 離明이 위에서 주관하는 형상이므로 이름한 것이다. 坤宮을 玄委라고 이름한 것은 坤卦는 地가 되고 玄은 幽遠이고 委는 隨順하여 地道가 幽遠柔順하므로 이름한 것이다. 兌宮을 倉果라고 이름한 것은 果는 果實이다. 萬物이 가을에 이르러 收藏成實하므로 이름한 것이다. 乾宮을 新洛이라고 이름한 것은 新은 시작하는 것이고, 洛書에서 戴九履一이라고 하였으니 一은 乾이 시작하는 것이다. 이 九宮의 地位가 八方四時에 상응하여 각각 때를 따라 命名하게 된 것이다. (坎宮名叶蟄者是 冬令主蟄封藏하여 至一陽初動之時에 蟄蟲始振이라 故名曰叶蟄이라 艮宮名天留者是 艮爲山이니 正而不動하여 因以爲名이라 震宮爲倉門者是 倉은 藏也니 天地萬物之氣收藏하고 至東方春令而始震動開闢이라 故名倉門이라 巽宮名陰洛者是 洛書以二四爲肩이라 巽宮位居東南 而主四月하니 因以爲名이라 離宮名天宮者是 日月麗天하여 主離明在上之象이니 因以爲名이라 坤宮名玄委者是 坤爲地요 玄은 幽遠也요 委는 隨順也라 地道幽遠柔順하니 是以名之라 兌宮名倉果者是 果는 實也라 萬物至秋而收藏成實하니 是以名之라 乾宮名新洛者是 新은 始也요 洛書戴九履一하니 一乃乾之始也라 此九宮之位 | 應於八方四時하여 各隨時而命名也라)”라고 하였다.

그림에서 매 宮에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데 그 배열형식은 “上九下一 左三右七 二四爲肩 六八

爲足 五居中央⁹⁾인데 이는 洛書九宮數라고 부르고, 《周書洪範》에서 나온 것이다. 이 숫자중에서 1, 3, 5, 7, 9의 奇數는 또한 陽數와 대칭이 되고, 2, 4, 6, 8, 10의 偶數는 또한 陰數와 대칭이 된다. 陽數가 爲主가 되어 正方位에 위치하게 되어 天氣를 대표하고, 陰數는 보충하는 것이 되어 네 모퉁이에 위치하게 되어 地氣를 대표하고, 5는 1, 3, 7, 9의 중간에 있어서 土氣에 속하여 五行生數의 우두머리가 되어 中宮에 위치하고 네 모서리에 부착하여 왕성한 것이니, 《運氣論奧諺解》에서는 “土居中央而寄位四維”, “四維者 四隅也”라고 하였다. 이러한 숫자의 多寡는 四時氣候寒溫의 변화와 하루의 光熱의 강약을 나타낸다. 따라서 八方風向이 오는 길과 그 성질의 剛柔寒熱燥濕 등의 차이는 가히 추측할 수 있다.

2. 太一

九宮八風運動은 太一이 節氣에 따라 운동하는 상태에 따라 발생한다고 하였으므로, 太一에 대한 用語定立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조사하기로 하겠다.

1) 太一의 辭典的 意味

太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전을 찾아보아 아래와 같이 다섯가지로 요약된다고 할 수 있겠다⁹⁾.

① 오른쪽 눈의 神이름이다. 《太上黃庭中景

經》에 “右目爲月太一然”이라고 하였고, 李千乘의 注에 “右目象月 神名太一字晨嬰一名明珠”라고 하였다.

② 古代에 天地萬物을 형성하는 元氣라고 하였으니, 《莊子天地》에 “主之以太一”이라고 하였고, 唐나라 成玄英의 疏에 “太者 廣大之名 一以不二爲稱 言大道廣蕩 無不制圍 括囊萬有 通而爲一 故謂太一也”라고 하였다.

③ 별자리의 이름으로 紫微宮의 閭闔門중에 있고, 太乙이라고도 하였다. 《星經》에 “太一星在天一南半度 天帝神 主十六神”이라고 하였다.

④ 天神을 말하고, 太乙 또는 泰一이라고도 불린다. 《史記封禪書》에 “太一一星 天帝之神也 主使十六龍 知風雨 水旱 兵革 饑饉 疾疫”라고 하였다.

⑤ 기타의 의미로 天帝, 道, 原始的 素朴한 狀態나 太古時代, 終南山의 다른 이름, 宮의 이름, 宗派의 이름 등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太乙에 대하여서는 北極星의 이름, 산 이름, 太一神의 이름, 會陰穴의 이름 등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래 北辰神의 이름이었고 후에는 변화되어 고대의 일종의 術數라는 개념으로 변화하였다. 《易緯乾鑿圖》에 “太乙取其數以行九宮”이라고 하였고, 鄭玄의 注에 “太乙北辰神名也”라고 하였다. 그리고 ‘太乙’은 또한 ‘太一’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史記封禪書》에 “天神貴者太一”이라고 하여, 術數家들은 太乙이 하늘의 귀중한 神이라고 하여 ‘太乙行九宮法’을 창조 하였다. 太乙과 六壬과 奇門遁甲을 합하여 ‘三式’이라고 하는데 太乙은 乾卦로 一宮을 삼고, 巽卦로 九宮을 삼아서 점치는 방법으로, 六壬術이 유행하면서 太乙式이 점차로 소멸되었다. 그러나 1978년 安徽省阜陽汝陰侯漢墓에서 太乙式盤이 출토된 이후 사람들에게

9) ①呂光榮, 中國氣功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②中國道教協會, 道教大辭典, 北京, 華夏出版社, 1994.

③胡孚琛, 中華道教大辭典,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古太乙占法이 알려지게 되었다¹⁰⁾.

2) 太一游宮¹¹⁾

太一이 차례에 의거하여 각 궁을 움직이는 것을 太一游宮이라고 한다. 실제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北斗七星이 太一(北極星)의 주위를 돌면서 十二辰을 가리켜서, 二十四節氣가 교대로 이동하고, 그가 가르키는 방향(太一游宮)이 각 節氣의 때에 해당하니, 예를들면 張景岳이 “一歲四時之候 皆統於十二辰 十二辰者 以斗綱所指之地 卽節氣所在之處也 正月指寅 二月指卯 三月指辰 四月指巳 五月指午 六月指未 七月指申 八月指酉 九月指戌 十月指亥 十一月指子 十二月指丑 謂之月建 天之元氣 無形可觀 觀斗建之辰 卽可知矣 斗有七星 第一曰魁 第五曰衡 第七曰杓 此三星謂之斗綱 假如正月建寅 昏則杓指寅 夜半衡指寅 平旦魁指寅 餘月仿此 (一歲四時的氣候는 모두 十二辰에 의하여 통솔되는데, 十二辰은 斗綱이 가리키는 곳이니 즉 節氣가 있는 곳이다. 正月은 寅을, 二月은 卯를, 三月은 辰을, 四月은 巳를, 五月은 午를, 六月은 未를, 七月은 申을, 八月은 酉를, 九月은 戌을, 十月은 亥를, 十一月은 子를, 十二月은 丑를 가리키니 이것을 月建이라고 한다. 하늘의 元氣는 형체를 가히 볼수 없으니 斗建의 별자리를 보면 곧 알수 있을 것이다. 斗는 七星이 있으니 第一은 魁요, 第五는 衡이요, 第七은 杓니, 이 세별을 斗綱이라고 하니 예를 들면 正月의 寅에 저녁에는 杓가 寅方을 가리키고, 夜半에는 衡이 寅方을 가리키

고, 평旦에는 魁가 寅을 가리킨다. 나머지 달도 이와 같다.”라고 한 것이다.

太一游宮할 때에 항상 冬至日의 北方의 위치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意義는 바로 張景岳이 “天地之氣 始於子中 子居正北 其名朔方 朔者 盡也 初也 爲陰氣之極 陽氣之始也 邵子曰 陽氣自北方而生 至北方而盡 故堯典謂北方爲朔易 朔易者 除舊更新之謂也 蓋其自子至亥 周而復始 以成 東西南北 春夏秋冬之位 (天地의 氣가 子中에서 시작하니 子는 正北에 거처하고 그 이름은 朔方이다. 朔은 盡이며 初이니 陰氣가 지극한 것이며, 陽氣가 시작되는 것이다. 邵자가 가르대 陽氣가 北方으로부터 生하여 北方에 이르러 다하게 되기 때문에 堯典에서 北方이 朔易이 된다고 하였다. 朔易은 除舊更新한다는 것을 말한다. 대개 子로부터 亥에 이르기까지 周而復始하여 東西南北과 春夏秋冬의 지위를 생성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王玉川은 《運氣探秘》에서 《靈樞九宮八風篇》의 太一遊宮은 18349276의 순서로 운행되는 것이고, 《九宮經》은 123456789의 순서로 운행되고; 또 《靈樞九宮八風篇》의 太一の 운행노선은 시간에 따라 시계방향으로 돌아가지만, 《九宮經》은 불규칙적으로 순행하므로 이 두가지는 비록 각 궁에 배당된 숫자는 동일하지만 그 운동하는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구별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3. 八風¹²⁾

10) ①呂光榮, 中國氣功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②中國道教協會, 道教大辭典, 北京, 華夏出版社, 1994.

③胡孚深, 中華道教大辭典,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11) 河北中醫學院, 靈樞經校釋(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379, 381. 1982.

12) ①王玉川, 運氣探秘, 北京, 華夏出版社, pp. 118~119, 1993.

②山田慶兒, 九宮八風說과 少師派의 立場, 東方學報, 日本, pp. 210~224.

八風은 여덟종류의 각기다른 방향에서 불어 오는 바람으로, 각기 다른 계절에서의 주도적인 風向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八風과 계절의 상응을 八節風 또는 季節風이라고 한다. 《呂氏春秋》, 《淮南子》, 《史記》 등의 秦漢時代의 古典中에서도 모두 八節風과 관계가 깊은 論述을 하였다.

사람과 자연계는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이다. 古代醫學者들은 八節風을 疾病發生의 구성성분이라고 생각하였으니, 《素問八正神明論》에 “八正者 所以候虛邪以時至者也”라고 하였고, 《靈樞九鍼論》, 《素問移精變氣論》, 《素問脈要精微論》, 《素問陰陽類論》, 《靈樞歲露論》 등의 문장에 도 八風에 의하여 나타나는 疾病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八風과 臟腑를 자세하게 배합하여 놓은 것은 《靈樞九宮八風篇》으로 太一이 中宮에 들어 갔을 때 바람이 부는 것으로 일년의 길흉과 각 身分의 吉凶과 기타 여러 가지의 吉凶을 점친다고 하였는데, 특히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인체의 특정한 어느곳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와같이 八風을 九宮說에 적용하여 의학적인 내용을 충실하게 하여, 占이라는 의미보다는 醫學理論의 한 부분으로 편입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인체에 病理現狀을 유발할 수 있는 虛風과 생리활동을 유지시켜 주는 實風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三虛三實의 개념이 도입되어 年月時의 虛와 實에 따라 病邪가 침범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4. 九宮八風運動

九宮八風圖를 중심으로 연구해 보면, 변화하는 면에서 보면 그림과 같이(즉 12궁)이 된다. 그러나 그것은 변화의 입장이기 때문에 宮의 규정은 필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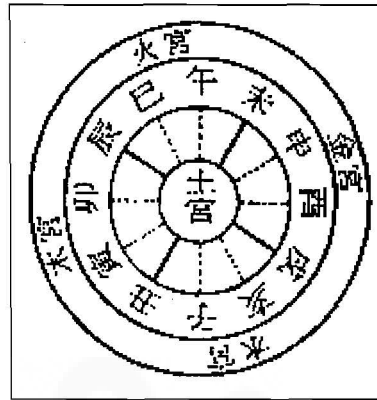


그림 2 九宮八風圖

宮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자리를 규정하는 것 인즉 이것은 방위의 규정이다. 그림을 보면 원의 주위에는 木火金水의 八宮이 있고 중앙에 土宮이 있으므로 이것을 합하여서 九宮이 된다. 다시 말하면 八宮은 주위에 자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陰陽의 勝負, 즉 대립상태에 있는 것이다. 寅木과 卯土의 대립, 巳火와 午火의 대립, 申金과 酉金의 대립, 亥水와 子水의 대립상태로서 八位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즉 이와같은 八位는 서로 相殊한 투쟁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八風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對立을 조절하는 土는 중앙에만 位가 있고 주위에는 位가 없다. 다만 중앙의 位에서 주위의 木火金水의 位에 나와서 작용만 하는 것인즉 宇宙運動의 방위는 八個所뿐이다. 그런즉 中央土位(宮)까지 합하여서 九宮인 것이나 실제로 운동하는 宮은 八宮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九宮八風作用이라고 한다.

그런즉 우리는 여기에서 宇宙運動의 본질은

아무리 부연한다고 할지라도 이상에서 말한 바 八族群 이외에는 더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伏羲가 宇宙運動의 象을 卦로서 그릴 때에 그 기본을 八卦로서 표시했던 것이다. 그런즉 九宮八風의 운동이란 것은 九宮八風運動의 변화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九宮八風運動은 六氣의 對化作用의 도움을 얻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인즉 한마디로 말해서 宇宙의 변화란 九宮八風運動인데 그것은 對化作用과 自化作用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즉 그것은 바로 五運의 55數가 六氣의 64數로 변화함으로써 九宮八風運動을 하게 되는 것인즉 九宮八風이란 것은 宇宙變化의 구체적인 상태인 것이다.

5. 《黃帝內經》에서의 관련내용

여기에서는 九宮八風과 관련이 있는 부분을 발췌하고 諸家의 注釋을 참고하여 해석을 덧붙여 놓았다.

1) 《靈樞九宮八風篇》¹³⁾

(太一이 九宮을 運行하는 規律을 설명함)

太一은 常以冬至之日로 居叶蟄之宮四十六日하고 明日에 居天留四十六日하고 明日에 居倉門四十六日하고 明日에 居陰洛四十五日하고 明日에 居天宮四十六日하고 明日에 居玄委四十六日하고 明日에 居倉果四十六日하고 明日에 居新洛四十五日하고 明日에 復居叶蟄之宮하니 曰冬至矣라 太一이 游는 以冬至之日로 居叶蟄之宮하야 數所在日하고 從一處로 至九日하면 復反

於一하야 常如是無已하야 終而復始라

太一(北極星)의 순행에 대하여 一陽이 初動하여 歲時의 첫머리가 되는 冬至에 북방의 叶蟄宮(坎宮)에서 시작되는데 叶蟄宮이라는 이름은 一陽이 처음 動하는 때에 蟄蟲이 움직이기 시작하므로 지어진 이름으로 여기에서 冬至小寒大寒三節의 46일을 거쳐하고, 다음날에 동북방의 天留宮(艮宮)으로 가는데 天留宮이라는 이름은 艮卦가 山이 되니 正而不動하기 때문에 이름지어진 것으로서 여기에서 立春雨水驚蟄三節의 46일을 거쳐하고, 다음날에 倉門宮(震宮)으로 가는데 倉門宮이라는 이름은 倉은 저장하는 것이므로 天地萬物의 氣가 收藏되고 東方春令에 이르러 비로소 震動開闢하므로 倉門이라고 한 것으로 여기에서 春分清明穀雨三節의 46일을 거쳐하고, 다음날에 陰洛宮(巽宮)으로 가는데 陰洛宮이라는 이름은 洛書에서 二四爲肩이라고 하였으므로 巽宮이 東南方에 거처하여 四月를 주관하므로 지어진 이름으로 여기에서 立夏小滿芒種三節의 45일을 거쳐하고, 다음날에 天宮(離宮)으로 가는데 天宮이라는 이름은 日月이 하늘에 매달려 離明이 하늘에 있는 形象이므로 지어진 이름으로 여기에서 夏至小暑大暑三節의 46일을 거쳐하고, 다음날에 玄委宮(坤宮)으로 가는데 玄委宮이라는 이름은 坤은 地이고 玄은 幽遠한 것이고 委는 隨順한 것이므로 地道가 幽遠柔順하므로 지어진 이름으로 여기에서 立秋處暑白露三節의 46일을 거쳐하고, 다음날에 倉果宮(兌宮)으로 가는데 여기에서 倉果宮이라는 이름은 果는 충실한 것으로 萬物이 가을에 이르러 收藏成實하므로 지어진 이름으로 여기에서 秋分寒露霜降三節의 46일을 거쳐하고, 다음날에 新洛宮(乾宮)으로 가는데 新洛宮이라는 이름

13) 河北中醫學院, 靈樞經校釋(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372~390, 1982.

은 新은 시작하는 것이고 洛書는 戴九履一하므로 이 이에 乾의 시작이 되므로 지어진 이름으로 여기에서 立冬小雪大雪三節의 45일을 거쳐하고, 다음날에 다시 마蟄宮에 돌아온다. 이 중에서 乾宮과 巽宮은 天門과 地戶로써 단지 45일이 되어 모두를 합하면 366일이 되어 一年이 된다. 太一의 운행은 冬至에 마蟄宮(坎宮)에 거쳐하는 것으로부터 新洛宮(乾宮)에서 마치니 八宮이 되고, 다시 첫 번째의 마蟄宮(坎宮)에 돌아오므로 끝없이 순환하는 것이다. 그러나 九宮이 되지 않고 八宮이 되는 것은 中宮은 太一(太乙)이 있는 곳으로서 나머지 八宮에 臨御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日本의 山田慶兒의 九宮八風說과 少師派의 立場이라는 論文을 東方學報에 發表한 것을 요약하여 《靈樞九宮八風篇》과 의 비교를 시도하기로 하였다.

1977년 7월 安徽省 阜陽縣 雙古堆에서 西漢의 汝陰侯의 墓를 발굴하였는데, 여기에서 天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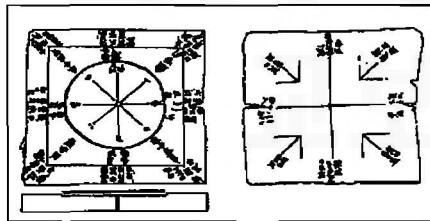


그림 3) 太一九宮占盤

學 및 占星術에 사용되는 세종류의 기구를 발굴하였다. 그중 一號盤은 六壬式盤이라고 하고, 二號盤은 太一九宮占盤이라고 하고, 三號盤은 用途가 불분명하여 이름을 정하지 못하였다. 이 중 二號盤인 太一九宮占盤은 《阜陽縣雙古堆西漢汝陰侯墓發掘簡報》에 따르면 太一九宮占盤의 정면은 八卦의 위치와 五行의 속성에 근거하여

배열되어 있는데 九宮의 명칭과 각 宮節氣의 日數는 《靈樞九宮八風篇》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여, 內經研究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고 할수 있다. 小圓盤의 조각은 河圖洛書와 완전히 부합된다고 한다. 이 占盤은 원형의 天盤과 方形의 地盤으로 되어 있고, 地盤에 달린 회전축이 天盤을 떠받치고 있다. 天盤과 地盤의 여러곳에 文字를 적어 두었는데, 그 중에는 占盤을 제작한 연대를 유추할 수 있게 “第三七年 辛酉日 中冬至”의 열글자가 3행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顯頊曆에 근거하여 추산해보면 한나라 文帝 七年(기원전 175년)이다.

그리고, 太一九宮占盤의 天地盤上面의 문자를 테두리 안과 밖의 순서로 시계방향으로 묘사하면 아래와 같다.

- 一 君 當者有憂 冬至 冬至 汁蟄 四十六日廢明日
- 八 當者病 立春 立春 天溜 四十六日廢明日
- 三 相 當者有喜 春分 春分 蒼門 四十六日廢明日
- 四 當者有僂 立夏 立夏 陰洛 四十五日明日
- 九 百姓 當者顧 夏至 夏至 上天有 四十六日廢明日
- 二 當者有死 立秋 立秋 玄委 四十六日廢明日
- 七 將 當者有盜爭 秋分 秋分 倉果 四十五日明日
- 六 當者有患 立冬 立冬 新洛 四十五日明日

이 문장은 《靈樞九宮八風篇》의 문장과 같고, 다만 ‘廢’字만이 더 추가되어 있다. 여기에서 각 宮의 이름은 隨代 蕭吉의 《五行大義》에서 “謂之九宮 皆神所遊處 故以名宮也”라고 하여 神이 있는 곳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太一神이 冬至에 汁蟄宮에서 46일동안 있다가 立春에 天溜宮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계속하여, 일년이 되면 전체를 한바퀴돌게 된다. 그러나 隨代 蕭吉은 《五行大義》에서 “黃帝九宮經云 …… 太乙行九宮 從一始 以小之多 順其數也”라고 하여 九

宮의 運行이 1에서 9까지 숫자의 크기에 따라 순행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나오는 《靈樞九宮八風篇》의 문장은 太一의 변화에 따른 占을 언급하였으니, 이 부분까지가 太一九宮占盤에 대한 해설이라고 유추하고 있다.

太一九宮占盤에 當者有憂, 當者病, 當者有喜, 當者有瘳, 當者顛, 當者有死, 當者有盜爭, 當者有患이라는 占辭들은 醫學과의 관계가 미약하므로 여기에 의학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결부하기 위하여 風이라는 매체를 사용하여 九宮과 風을 결합하게 되어 太一이 다른 宮으로 옮길 때에는 하늘의 기운도 이에 부응하여 風雨가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太一의 변화에 따라서 임금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계층의吉凶을 예측하였다.

이상의 내용들로 보아 太乙九宮占盤은 九宮八風篇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九宮占을 風과 결합시켜 의학에 운용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太一移宮때에 天氣가 相應함)

太一이 移日에 天必應之以風雨하나니 以其日에 風雨則吉하나 歲美民安少病矣라 先之則多雨하고 後之則多(汗)[旱]이라

太一이 순행할 때에는 하늘의 기운이 이에 상응하여 天地陰陽의 和氣인 風雨가 발생하는 것이 정상이니, 그 해당하는 날짜에 風雨가 발생하면吉한 정조이니 백성들이 편안하고 질병도 적게 발생할 것이다. 만약 太一의 移日이 빠르면 그 氣가 有餘한 것이므로 風雨가 많이 발생하고, 늦으면 그 氣가 不足하여 風雨가 발생하지 않아서 가뭄이 된다.

(太一의 變에 따른 占에 대하여)

太一이 在冬至之日에 有變하면 占在君하고 太一이 在春分之日에 有變하면 占在相하고 太一이 在中宮之日에 有變하면 占在吏하고 太一이 在秋分之日에 有變하면 占在將하고 太一이 在夏至之日에 有變하면 占在百姓이니이다

太一이 일년의 우두머리이며 북쪽에 위치한 冬至날에 변화가 생기면, 임금이 북쪽에 거처하여 남쪽을 바라보고 정치를 행하는 것과 形象이 상응하니 점치는 것이 임금에게 있고; 동쪽에 위치한 春分날에 변화가 생기면, 宰相이 文衡을 가지고 教化하는 기능을 담당하여 봄의 기운에 상응하므로 점치는 것이 宰相에게 있고; 土에 속하는 中宮의 날에 변화가 생기면, 官吏가 여러 가지 일들을 分任하고 있는 것과 형상이 상응하니 점치는 것이 官吏에게 있고; 서쪽에 위치한 秋分날에 변화가 생기면, 將帥가 威武가 있어 殺伐하는 직책을 수행하는 것과 형상이 상응하니 점치는 것이 將帥에게 있고; 남쪽의 夏至날에 변화가 생기면, 온 백성들이 모든 사물이 무성하여 지는 것과 형상이 상응하니 점치는 것이 百姓에게 있는 것이다.

(虛風과 實風에 대하여)

所謂有變者는 太一이 居五宮之日에 病風이 折樹木 揚沙石하면 各以其所主로 占貴賤이니이다 因視風所來而占之니 風이 從其所居之鄉으로 來하면 爲實風이니 主生長養萬物하나 從其衝後로 來하면 爲虛風이니 傷人者也니 主殺 主害者라 謹候虛風而避之니 故로 聖人이 日避虛邪之道를 如避矢石然하면 邪弗能害라하니 此之謂也이니이다

이른바 有變이라는 것은 太一이 五宮의 날에 거처할 때 病風이 折樹木 揚沙石하면 각각 그 주관하는 바로 貴賤을 점치는 것이다. 이미 風雨의 微甚을 살펴서 그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고 또 마땅히 그 해당 방위를 관찰하여서 吉凶을 점칠 것이니, 春의 東風, 夏의 南風, 秋의 西風, 冬의 北風, 春夏 환절기의 東南風, 秋冬 환절기의 西北風과 같이 風이 太一이 있는 곳으로부터 오면 天地四時의 正氣가 되어 實風이 되니 生長 養萬物하고, 冬至에 南西二方으로부터 오거나, 春分에 西北二方으로부터 오는 것같이 風이 반대방향이나 먼곳에서부터 불어와서 正氣를 잃게 되면 虛風이 되니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으로 殺과 害를 주관한다. 삼가 虛風을 살펴서 피하여야 하니 그러므로 聖人이 虛邪를 피하는 방법을 矢石을 피하는 것과 같이 하면 邪氣가 능히 사람을 해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을 이르러는 말이다.

(八風이 人體에 미치는 影響에 대하여)

是故로 太一이 入徙立於中宮이라야 乃朝八風이라야 以占吉凶也라 風이 從南方來를 名曰大弱風이니 其傷人也에 內舍於心하고 外在於脈하고 氣主熱이오 風이 從西南方來를 名曰謀風이니 其傷人也에 內舍於脾하고 外在於肌하니 其氣主爲弱이오 風이 從西方來를 名曰剛風이니 其傷人也에 內舍於肺하고 外在於皮膚하니 其氣主爲燥이오 風이 從西北方來를 名曰折風이니 其傷人也에 內舍於小腸하고 外在於手太陽脈이니 脈絕則溢이오 脈閉則結不通하니 善暴死이오 風이 從北方來를 名曰大剛風이니 其傷人也에 內舍於腎하고 外在於骨與肩背之膂筋하니 其氣主爲寒也이오 風이 從東北方來를 名曰凶風이니 其傷人也에 內舍於大腸하고 外在於兩脇腋骨下及肢節이오

風이 從東方來를 名曰嬰兒風이니 其傷人也에 內舍於肝하고 外在於筋紐하니 其氣主爲身濕이오 風이 從東南方來를 名曰弱風이니 其傷人也에 內舍於胃하고 外在於肌肉하니 其氣主體重이라

太一이 中宮에 들어가야 八風이 朝會하여 정상적인 기후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만이 八風으로 吉凶을 점칠 수 있는 것이다.

風이 南方으로부터 오는 것을 大弱風이라고 하는데 南方의 離火宮은 熱盛한 地方으로 風이 미약하게 오기 때문에 大弱風이라고 하였고, 이것이 사람을 상하게 할 때에 안으로는 火藏이 應하여 心臟에 들어가고 밖으로는 血脈에 있다. 心病은 곧 包絡이 그 가운데 있어서 병사를 이어 받기 때문에 그 氣는 熱을 주관한다.

風이 西南方으로부터 오는 것을 謀風이라고 하는데 西南方의 坤土宮은 陰氣가 바야흐로 생하고 陽氣가 더욱 盛하여 陰陽의 去就는 서로 의논하는 것이 있는 것 같으므로 謀風이라고 하였고, 이것이 사람을 상하게 할 때에 안으로는 土藏이 應하여 脾臟에 들어가고 밖으로는 肌에 있다. 脾氣는 陰濕한 것을 싫어하므로 그 氣는 弱한 것을 주관한다.

風이 西方으로부터 오는 것을 剛風이라고 하는데 西方의 兌金宮은 金氣가 剛勁하므로 剛風이라고 하였고, 이것이 사람을 상하게 할 때에 안으로는 金藏이 應하여 肺臟에 들어가고 밖으로는 皮膚에 있다. 그 病氣가 燥하게 되는 것을 주관한다.

風이 西北方으로부터 오는 것을 折風이라고 하는데 西北方의 乾金宮은 金이 折傷을 주관하므로 折風이라고 하였고, 이것이 사람을 상하게 할 때에 안으로는 小腸에 들어가고 밖으로는 手

太陽脈에 있으니 脈絶하면 澁하고 脈閉하면 結不通하게 되니 잘 暴死한다.

風이 北方으로부터 오는 것을 大剛風이라고 하는데 北方의 坎水宮은 氣寒하면 風烈하기 때문에 大剛風이라고 하였고,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水藏이 應하여 안으로는 腎臟에 들어가고 밖으로는 足太陽膀胱經의 骨과 肩背의 筋에 있다. 腎臟을 말한즉 膀胱도 또한 언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病氣는 모두 寒을 주관한다.

風이 東北來으로부터 오는 것을 凶風이라고 하는데 東北의 方艮宮은 陰氣가 아직 물러나지 않고 陽氣가 아직 盛하지 못하므로 凶風이라고 하였고, 이것이 사람을 상하게 할 때에 안으로는 大腸에 들어가고 밖으로는 兩脇腋骨下 및 肢節에 있다.

風이 東方으로부터 오는 것을 嬰兒風이라고 하는데 東方의 震木宮은 風이 東方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嬰兒風이라고 하였고, 이것이 사람을 상하게 할 때에 안으로는 木藏이 應하여 肝臟에 들어가고 밖으로는 筋紐에 있다. 그 氣가 身濕을 주관한다.

風이 東南方으로부터오는 것을 弱風이라고 하는데 東南方의 巽水宮은 氣緩하면 風柔하기 때문에 弱風이라고 하였고, 이것이 사람을 상하게 할 때에 東南方의 濕勝으로 인하여 木侮土하게 되면 안으로는 胃臟에 들어가고 밖으로는 肌肉에 있다. 그 氣가 體重을 주관한다.

아래는 八風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도표화 하였다.(표2)

표 2) 八風이 人體에 미치는 影響

風名과 經路				人體에 미치는 影響		
宮位	五行	風向	風名	內部	外部	病氣의 주관
離	火	南風	大弱風	心	脈	熱
坤	土	西南風	謀風	脾	筋肉	弱
兌	金	西風	剛風	肺	皮膚	燥
乾	金	西北風	折風	小腸	手太陰脈	脈이 끊기면 邪氣가 넘치고, 脈이 막혀 動하지 못하면 急死한다.
坎	水	北風	大剛風	腎	骨과 肩背의 筋部	寒
艮	土	東北風	凶風	大腸	兩脇腋骨下部 및 上肢關節	
震	木	東風	嬰兒風	肝	筋紐	身濕
巽	木	東南風	弱風	胃	肌肉	身重

(三虛에 대하여)

此八風이 皆從其虛之鄉來하면 乃能病人하나니 三虛相搏하면 則爲暴病卒死오 兩實一虛하고 病則爲淋露寒熱이오 犯其雨濕之地하면 則爲痿라 故聖人은 避風을 如避矢石焉이라 其有三虛而偏中於邪風하면 則爲擊仆偏枯矣니이다

이러한 八風이 모두 그 虛한 곳으로부터 오면 이에 능히 사람을 병들게 하니, 乘年之衰 逢月之空 失時之和한 三虛가 相搏하면 暴病卒死가 되는 것이고, 한가지라도 虛하면 즉 淋露寒熱이 되고 雨濕한 곳에 이르게 되면 痿證이 된다. 그러므로 聖人은 避風하는 것을 矢石을 피하는 것과 같이 한다고 하였다. 三虛한테 다시 邪風에 的中되면 곧 擊仆偏枯가 된다.

2) <<靈樞九鍼論>>14)

“黃帝曰 願聞身形이 應九野하노니 奈何오 岐伯曰

14) 河北中醫學院, 靈樞經校釋(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 404, 1982.

請言身形之應九野也^{르니}이다 左足應立春^{하니} 其日戊寅己丑^{이오} 左脇應春分^{하니} 其日乙卯^오 左手應立夏^{하니} 其日戊辰己巳^오 應喉首頭應夏至^{하니} 其日丙午^오 右手應立秋^{하니} 其日戊申己未^{이오} 右脇應秋分^{하니} 其日辛酉^오 右足應立冬^{하니} 其日戊戌己亥^오 腰尻下竅應冬至^{하니} 其日壬子^오 六府膈下三藏應中州^{하니} 其大禁^{이라} 大禁太一^一 所在之日 及諸戊己^라 凡此九者 善候八正所在之處^{하니} 所主左右上下 身體有癰腫者 欲治之^{로대} 無以其所直之日漬治之^{하니} 是謂天忌日也^라”라고 하여 사람의 形體가 九宮에 상응하는 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를 도표화 하면 아래와 같다.

左 手 立 夏 戊辰己巳	應喉首頭 夏 至 丙 午	右 手 立 秋 戊申己未
左 脇 春 分 乙 卯	六府膈下 三藏 中 州	右 脇 秋 分 辛 酉
左 足 立 春 戊寅己丑	腰尻下竅 冬 至 壬 子	右 足 立 冬 戊戌己亥

《類經圖翼·身形應九野太乙所在天忌圖》에서 는 “九宮八風篇에 以八節로 分八宮하야 而稱爲 太一所居者는 正合月建之序^{하니} 蓋月建所在之 方은 卽時令所王之位^오 人身之氣 無不應之^라 故凡鍼灸家 當知避忌者^니 恐傷其王氣^耳니라 (九宮八風篇에 八節로 八宮을 나누어 太一이 거 처하는 곳이 바로 月建의 순서에 합한다고 하였 으니 대개 月建이 있는 방위는 즉 時令이 왕성 한 자리가 되고, 사람의 氣가 응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무릇 鍼灸家들은 마땅히

避忌할 것을 알아야 하니 그 왕성한 氣를 손상 시킬까 두려워 하여서이다.)”¹⁵⁾라고 하여 보충 설명을 하였다.

3) 《靈樞藏露論》¹⁶⁾

(天人相應에 대하여)

黃帝問於少師曰 余聞四時八風之中人也 故有寒暑^{하니} 寒則皮膚急而腠理閉^{하고} 暑則皮膚緩而腠理開^{하니} 賊風邪氣 因得以入乎^아 將必須八正虛邪 乃能傷人乎^{잇가} 少師答曰 不然^{하니}이다 賊風邪氣之中人也 不得以時^나 然이나 必因其開也^{하면} 其入深^{하고} 其內極病^{하고} 其病人也 暴이오 因其閉也^{하면} 其入淺以留其病也 徐而遲^니이다 黃帝曰 有寒溫合適^{하고} 腠理不開^나 然이나 有卒病者는 其故何也^오 少師答曰 帝弗知邪入乎^아 雖平居^{라도} 其腠理開閉緩急^{하니} 其故常有時也^라 黃帝曰 可得聞乎^{잇가} 少師曰 人與天地相參也^{하고} 與日月相應也^라 故月滿則海水西盛^{하고} 人氣血積 肌肉充 皮膚緻 毛髮堅 腠理郤 煙垢著 當是之時에 雖遇賊風^{이라도} 其入淺不深^{이라} 至其月郭空^{하면} 則海水東盛^{하고} 人氣血虛 其衛氣去 形獨居 肌肉減 皮膚縱 腠理開 毛髮殘 腠理薄 煙垢落^{하니} 當是之時에 遇賊風^{하면} 則其入深^{하고} 其病人也 卒暴^라

黃帝가 少師에게 물어 가로대 내가 듣기에 四時八風이 사람에 침범함에 진실로 寒暑가 있으니, 寒하면 皮膚急而腠理閉^{하고} 暑하면 皮膚緩而腠理開^{하니} 賊風邪氣가 이로 인하여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八正虛邪가 이에 사람을 傷하게 하는 것입니까? 少師가 答하여 가로

15) 張景岳, 類經圖翼, 서울, 大星文化社, p.92, 1990.

16) 河北中醫學院, 靈樞經校釋(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425~434, 1982.

대 그렇지 않습니다. 賊風邪氣가 사람에게 침범함에 정하여진 시간은 없으나, 반드시 사람의 腠理가 열리면 깊게 침범하고 內로 病이 극하게 되고 사람에게 병이 되는 것이 갑자기 되는 것이며; 사람의 腠理가 닫혀있으면 邪氣가 침입하는 것이 淺留하여 그 病이 늦게 진행됩니다. 黃帝가 가로대 寒溫和適하고 腠理가 열리지 않았으나 갑자기 病이 되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少師가 답하여 가로대 黃帝께서는 邪氣가 인체에 침입한 것을 모릅니까? 비록 平居할 지라도 腠理의 開閉에 緩急이 있으니 항상 정하여진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黃帝가 가로대 그것에 대하여 들을수 있습니까? 少師가 가로대 사람과 天地가 서로 관련하고 日月로 더불어 서로 상응하므로 月滿하면 海水가 西盛하고 사람에게 있어서 血氣積 肌肉充 皮膚緻 毛髮堅 腠理郤 煙垢著하니 이때에 비록 賊風을 만날지라도 邪氣가 깊게 들어오지는 못하는 것이고; 月郭空한데 이르면 海水가 東盛하고 사람에게 있어서 氣血虛 衛氣去 形獨居 肌肉減 皮膚縱 腠理開 毛髮殘 腠理薄 煙垢落하니 이때에 賊風을 만나면 邪氣가 깊게 들어오고 疾病이 갑자기 발생하는 것입니다.

(三虛三實에 대하여)

黃帝曰 其有卒然暴死暴病者는 何也오 少師答曰 三虛者는 其死暴疾也오 得三實者는 邪不能傷人也라 黃帝曰 願聞三虛하노이다 少師曰 乘年之衰 逢月之空 失時之和 因爲賊風所傷을 是爲三虛라 故論不知三虛 工反爲癩라 帝曰 願聞三實하노이다 少師曰 逢年之盛 遇月之滿 得時之和에 雖有賊風邪氣라도 不能危之也를 命曰三實라

黃帝가 가로대 갑자기 病이 들거나 갑자기 죽

는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少師가 답하여 가로대 三虛한 경우는 갑자기 죽는 것이고; 三實을 얻는 경우는 邪氣가 사람을 상하게 하지 못합니다. 黃帝가 가로대 三虛에 대하여 듣고자 합니다. 少師가 가로대 乘年之衰 逢月之空 失時之和하여 이로 인하여 賊風에 傷하게 되는 것을 三虛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三虛를 알지 못하면 庸醫가 되는 것입니다. 黃帝가 가로대 三實에 대하여 듣고자 합니다. 少師가 가로대 逢年之盛 遇月之滿 得時之和할때에 비록 賊風邪氣를 만날지라도 위태롭게 되지 않는 것을 三實이라고 합니다.

(歲露에 대하여)

黃帝曰 願聞歲之所以皆同病者는 何因而然오 少師曰 此八正之候也니이다 黃帝曰 候之奈何오 少師曰 候此者는 常以冬至之日에 太一立於叶蟄之宮하나니 其至也에 天必應之以風雨者矣니이다 風雨從南方來者는 爲虛風이니 賊傷人者也나 其以夜半至也는 萬民皆臥而弗犯也라 故其歲民少病하고 其以晝至者는 萬民懈惰而皆中於虛風이라 故萬民多病이니이다 虛邪入客於骨而不發於外하면 至其立春하야 陽氣大發하니 腠理開發세 因立春之日에 風從西方來하면 萬民又皆中於虛風하니 此는 兩邪相搏하며 經氣結代者矣라 故諸逢其風而遇其雨者는 命曰 遇歲露焉이라 因歲之和 而少賊風者는 民少病而少死하고 歲多賊風邪氣하고 寒溫不和하면 則 民多病而死矣니이다

黃帝가 가로대 한해에 같은 病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少師가 가로대 이것은 八正의 氣候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黃帝가 가로대 어떻게 살필니까? 少師가 가로대 이것을

살피는 것은 항상 冬至날에 太一이 마 蟄宮에 있으므로, 그때에는 하늘의 氣運이 이에 상응하여 반드시 風雨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風雨가 南方으로부터 오는 것은 虛風이 되니 사람을 損傷시키는 것이로대 만약 그것이 夜半에 어떤 모든사람들이 잠을 자는 때이므로 邪氣가 人體에 침범하지 못하므로 사람들이 病에 드는 경우가 적습니다. 만약에 낮에 침범하면 虛風에 침범받아 懈惰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疾病에 걸리게 됩니다. 虛邪가 뼈에 까지 들어와서 外部로 發散되지 않으면 立春日에 이르러 陽氣가 大發하여 腠理가 열리게 되고, 다시 立春日에 風이 西方으로부터 불어오면 사람들이 모두 虛風에 損傷되니 이것은 겨울과 봄의 두 邪氣가 서로 싸우는 것이며, 經脈에 침범한 邪氣가 번갈아 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風과 雨를 만나는 것을 歲露를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歲和한데 賊風이 적은 경우는 사람들이 少病하면서 少死하고, 賊風邪氣가 많고 寒溫이 不和한 때에는 사람들이 病들고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邪風이 人體에 미치는 影響)

黃帝曰 虛邪之風이 其所傷貴賤은 何如也 候之奈何 少師答曰 正月朔日에 太一居天留之宮^{한세} 其日에 西北風하고 不雨면 人多死矣 正月朔日 平旦에 北風하면 春에 民多死 正月朔日 平旦에 北風行하면 民病多者 十有三也 正月朔日 日中에 北風하면 夏에 民多死 正月朔日 夕時에 北風하면 秋에 民多死 終日 北風이면 大病 死者十有六이오 正月朔日에 風從南方來하면 命曰旱鄉이오 從西方來면 命曰白骨이니 將國有殃 人多死亡이오 正月朔日에 風從東方來면 發屋하고 揚沙石하고 國有大災也 正月朔日에 風從東南方行이면 春有死亡이오 正

月朔日에 天和溫 不風穰賤 民不病이오 天寒而風하면 糴貴 民多病라 此所謂候歲之風이 殘傷人者也라 二月丑不風하면 民多心腹病이오 三月戌不溫하면 民多寒熱이오 四月巳不暑하면 民多癘病이오 十月申不寒하면 民多暴死라

黃帝가 가로대 虛邪의 風이 사람을 손상시키는 정도는 어떻습니까? 관찰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少師가 答하여 가로대 正月朔日에 太一이 天留宮에 있을때 西北風이 불고 비가오지 않으면 사람이 많이 죽고, 正月朔日 平旦에 北風이 불면 봄에 사람이 많이 죽고, 正月朔日 平旦에 北風이 불면 사람들이 病드는 것이 30%이고, 正月朔日 日中에 北風이 불면 여름에 사람들이 많이 죽고, 正月朔日 夕時에 北風이 불면 가을에 사람들이 많이 죽고, 終日토록 北風이 불면 大病하니 60%가 죽고; 正月朔日에 南方으로부터 바람이 불면 旱鄉이라고 말하고, 바람이 西方으로부터 불면 白骨이라고 부르니 장차 나라에 災殃이 있고, 사람들이 많이 죽을 것이고, 正月朔日에 바람이 東方으로부터 불어 發屋 揚沙石하면 나라에 커다란 災殃이 있을 것이고, 正月朔日에 바람이 東南方으로부터 불면 봄에 많이 죽게 되고, 正月朔日에 하늘의 기운이 和溫하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豐年이 되고 사람들이 病에 걸리지 않을 것이고, 날씨가 추우면서 바람이 불면 凶年이 되고 사람들도 病에 많이 걸릴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그 해의 風이 사람을 해치는 상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二月丑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心腹病이 많이 있고, 三月戌에 따뜻하지 않으면 寒熱病이 많고, 四月巳에 덥지 않으면 癘病이 많고, 十月申에 춥지 않으면 暴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6. 九宮星野說¹⁷⁾

《素問·天元紀大論》에서 “九星懸朗 七曜周旋”이라 하였으니 이는 星曜가 하늘의 일정한 분야에 象을 드리운 것을 말한 것이다. 王冰에 의하면 “九星上古之時也 上古世質人淳 歸真反(返)朴 九星懸朗 五運齊宣 中古道德稍衰 標星藏曜 故計星之見者七焉(九星은 上古時代に 출현하였는데 이때는 世質人淳하고 歸真反朴하며 九星이 懸朗하고 五運이 齊宣하였지만 中古時代に 이르러서는 道德이 점점 쇠미해지자 標星이 밝음을 감추어 7개의 별만이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九星에 대한 天元玉冊의 九星注에서는 “天蓬一水正之宮也 天芮二土神之應宮也 天衝三木正之宮也 天輔四木神之應宮也 天禽五土正之宮也 天心六金神之應宮也 天柱七金正之宮也 天任八土神之應宮也 天英九火正之宮也 九星有位以應九州之分野 卽冀兗青徐揚荊豫梁雍禹貢九州之次也”라고 하였다. 여기서 正은 神의 뜻이 있으며 아울러 君也·長也의 뜻도 있다. 四維에서는 神을 그대로 神이라 하고 그 居하는 위치에 대해서만 應宮이라 하였는데 應宮은 ‘五氣相應之別宮’의 의미가 있다.

七曜는 日月과 五星 즉 歲星(木星), 熒惑星(火星), 鎮星(土星), 太白星(金星), 辰星(水星)을 말한다.

《素問·六元正紀大論》에서 陰年 不及之歲에

17) ① 張景岳, 類經圖翼, 서울, 大星文化社, pp. 58~59, 1990.

② 徐春甫, 古今醫統大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p. 356~357, 1991.

고정된 災宮을 언급하였다. 또 “帝曰 勝復之氣 其常在也 災眚時至 候也奈何 岐伯曰 非氣化者 是謂災也”라 하였다. 이는 자연기후의 변화과정 속에는 勝氣와 復氣가 항상 존재하여 災眚이 항상 출현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재해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까? 라는 질문에 當位之氣가 主하는 氣化는 正化이고, 非當位之氣가 主하는 氣化는 邪化로 邪化가 재해가 된다는 말로 災는 傷也의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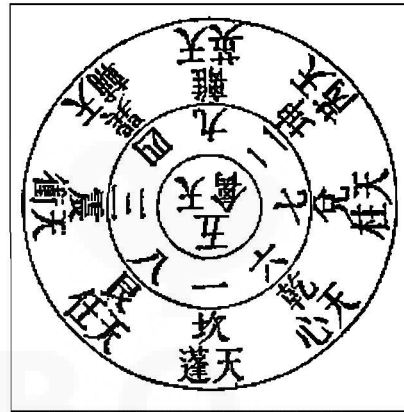


그림 4 災宮之圖

예를 들어 少角歲(丁年)에는 災三宮이라 하였는데 木不及之年에는 東室震位인 天衝(木星)이 災害를 받는다는 뜻이다.

少徵年(癸年)에는 災九宮이라 하였는데 火不及之年에는 南室離位인 天英(火星)이 災害를 받는다는 뜻이다.

少宮歲(己年)에는 災五宮이라 하였는데 土不及之年에는 中室인 天禽(土星)이 災害를 받으며 寄位二宮坤하거나 其嘗四維한다.

少商歲(乙年)에는 災七宮이라 하였는데 金不及之年에는 西室兌位인 天柱(金星)가 災害를 받는다는 말이다.

少羽歲(辛年)에는 災一宮이라 하였는데 水不及之年에는 北室坎位인 天蓬(水星)이 災害를 받

는다는 말이다.

이상은 모두 五運不及之方에 災害가 이름을 언급하고 甲丙戊庚壬의 歲運太過之年에 대해서는 災宮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張介賓은 《類經圖翼九宮星野說》에서 “然 經文止言 五正之宮 而不詳言九宮者 乃概舉五方爲言也 使 能再兼五行不盡之意而推廣之 則四隅之外及五太之年豈無所傷亦可意會而通矣(그러나 經文에서 다만 五個의 正宮을 언급하고 九宮을 상세하게 언급하지 않은 것은, 대략 五方位만을 들어서 언급한 것이다. 능히 다시 五行의 不盡한 뜻을 겸하여 그것을 推廣하면 四隅의 外와 五太의 해에 어찌 손상되는 바가 없겠는가? 또한 가히 뜻으로 알아서 통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끝으로 《唐會要》에 있는 九星의 別名과 배속된 九宮 및 五行九色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天蓬	太乙坎水白	天芮	攝提坤土黑	天衝	軒轅震木碧
天輔	招搖巽木綠	天禽	天符中土黃	天心	青龍乾金白
天柱	感池兌金赤	天任	太陰艮土白	天英	天乙離火紫

III. 結 論

九宮八風에 대하여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었다.

1. 太乙과 九宮은 모두 고대에는 占을 치는 방법의 하나였는데, 醫學에서 운용할 수 있게 된 것은 風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부터이다.
2. 《靈樞九宮八風篇》의 太一游宮은 18349276의 순서로 시계방향으로 돌아가지만, 《九宮經》은 123456789의 순서로 불규칙적으로 순행하므로 이 두가지는 비록 각 宮에 배당된 숫자는 동일하지만 그 운동하는 방법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3. 《靈樞九宮八風篇》과 《靈樞歲露論》은 모두 天人相應의 관점하에 계절의 변화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論述한 것이다.
4. 九宮八風運動은 六氣의 對化作用의 도움을 얻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주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1. 山田慶兒, 九宮八風說과 少師派의 立場, 東方學報, 日本,
2. 徐春甫, 古今醫統大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3. 심경호 역, 廖名春의 2人, 周易哲學史, 서울, 예문서원, 1995년.
4. 楊力, 周易과 中國醫學(중), 洪元植의 옮김, 서울, 法仁文化社, 1995.
5. 呂光榮, 中國氣功辭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8.
6. 王玉川, 運氣探秘, 北京, 華夏出版社, 1993.
7. 郭東烈, 醫易啓悟, 서울, 成輔社, 1997.
8. 張景岳, 類經圖翼, 서울, 大星文化社, 1990.
9. 中國道教協會, 道教大辭典, 北京, 華夏出版社, 1994.
10. 河北中醫學院, 靈樞經校釋(下),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11. 胡孚琛, 中華道教大辭典,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5.
12.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동양의학연구소, 1987.
13. 黃漢立, 易學與氣功, 香港, 天地圖書有限公司, 1996.